10월 돈가는 2,000~2,100원/kg으로 전망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주) 식품본부 식육CM)

1. 9월 돈가

8월 중순까지 충분치 않았던 출하두수가 8월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9월 들어 도축이 밀리는 수준까지 늘어 육가공 업체의 손익 분기점 돈가이며 농가 생산비 수준인 2,400원/kg 이하로 형성되게 되었다.

돈가 2,400원~2,500원/kg은 양돈 농가와 육가공 업체가 현재 부위육 판매 체계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격이라 판단되어 이 돈가를 1차 지지선으로 간주 할 수 있으나 갑작스런 출하두수 증가로 지지선이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9월 돈가는 2차 지지선인 2,000원/kg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2. 10월 돈가 전망

육가공 작업장별 처리두수는 9월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출하두수는 늘어날 전망이어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9월 돈가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9월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두수 증가분을 소비 부분에서 흡수한다면 10월돈가는 9월과 같은 2,000원~2,100원/kg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발표된다면 200원/kg 정도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향후 3개월 돈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언급했듯이 등심, 후지의 소비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돈가 상승 가능성은 없다. 계절적으로 출하두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하절기에 비해 돈육 소비가 감소하는 바, 2,300원/kg 이상 형성되기가 어렵다.

만약, 비축 재고분이 가공업체의 도축 두수 증가를 어렵게 할 경우와 정부 수매 돈육의

육가공 작업장별 처리두수는 9월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출하두수는 늘어날 전망이어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9월 돈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측면에서 보면 9월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두수 증가분을 소비 부분에서 흡수한다면 10월돈가는 9월과 같은 2,000원~2,100원/kg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발표된다면 200원/kg정도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저가 방출이 있으면 내년 3월까지도 저돈가 행진이 있을 수 있다. 올해는 과거와 달리 구제역 이외의 질병으로 자돈의 폐사가 적어 현재와 같은 기후가 유지되면 10월 중순 이후 3차 지지선으로 예상되는 1,800원/kg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4. 특별 대책 필요

내년의 양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소비 증가를 위한 돈육 소비 홍보, 돈가 하락시 급격한 충격 방지를 위한 2차 육가공 산업 (햄, 소시지, 냉동식품)의 발전(일본의 경우 2차 육가공 산업의 돈육 총소비량이 30% 수준인 반면 한국은 15%가 되지 않아 돈가 하락시 비축을 통한 돈가 상승 효과가 일본보다 적다)이 필수적이고, 단기적으로는 제3국을 통한 체화부위의 수출이다. 등심 및 후지 가격이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홍콩 수출시 가격보다는 높은 상태이어 가공업체에서는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에서 일부 손실 금액을 보조해 주더라도 적극 수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캔 제품의 수출이다.

가공품의 수출은 일본에 촛점을 두지 말고 러시아 및 기타 국가에 수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검역관련 협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양국간 검역 협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가공품 수출은 어렵기 때문이다.

5. 돈육 비축시 효과 극대화

정부의 단기 대책은 돈육 비축이다.

현재 중소가공업체는 담보여력이 없어서 실제로 비축자금 지원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비축시 돈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2차 육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한 돈육 비축 자금 지원이 바람직하다. 또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자금 선 지원이 아닌 비축 실적별 월별 자금 지원이 요구된다.

1차 가공업체(도축, 가공)에 비축해서 판매나 소진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돈가 상승은 있을지라도 큰 실효가 없을 것이다.

6. 현 싯점에서 양돈 농가가 해야 할 일

수차에 걸쳐 강조했지만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구제역이 재발된다면 막대한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과거 2년전부터 금년까지의 상황은 국내 양돈 농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구제역 재발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구제역만 재발되지 않는다면 내년의 양돈 산업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돈 자체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양돈 농가 스스로 이미 알고 있듯이 농가 자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양돈